

# 洪城 八卦里 풀무학원 所藏遺物 數例

崔 夢 龍\*  
秋 淵 植\*\*

## 目 次

- |              |              |
|--------------|--------------|
| I. 序 言       | 4. 黃褐色軟質土器 鉢 |
| II. 所藏遺物     | 5. 銅鏡        |
| 1. 磨製石器類     | III. 後言      |
| 2. 無文土器 長頸壺  | 사진           |
| 3. 灰青色軟質土器 蓋 |              |

## I. 序 言

現在 忠南 洪城郡 洪東面 八卦里 所在 풀무學院 鄉土室에 保管·展示되어 있는 遺物 中에는 磨製石器類·無文土器·百濟土器類·銅鏡 等 考古學的인 資料로서의 價値를 지닌 것들이 많다.

일찌기 이 풀무學院에 所藏 中이던 磨製石器類 4點에 對해서는 筆者에 의해 報告된 바 있으나,<sup>1)</sup> 보다 體系의인 調査로 주변에 알려진 遺跡과의 相互聯關性을 파악할 目的으로 1984년 3월 3일 서울大 考古學科에서 一次 地表調査 및 풀무學院 所藏遺物 實測 및 사진촬영을 行하였고, 그 뒤 3월 12일 二次 地表調査를 실시하였다.<sup>2)</sup>

兩次에 걸친 地表調査에서 別반 特徵있는 遺跡이나 遺物은 發見되지 않았으나, 이 곳 풀무學院 所藏遺物의 重要性에 비추어 이 글에서는 예전에 언급한 磨製石器類 4點과 아울러 소개되지 않았던 遺物을 說明함으로써 忠南地方의 文化를 이해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한다.

## II. 所藏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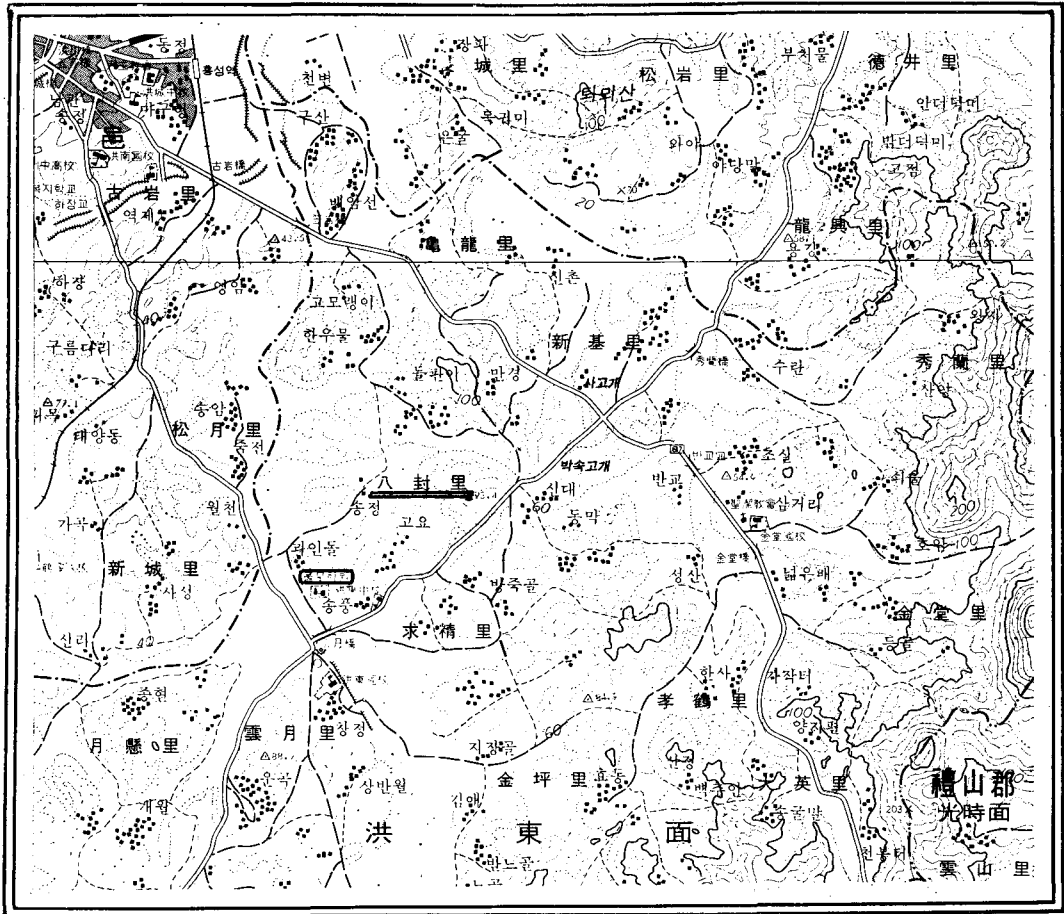
이 곳에 所藏 中인 磨製石器類는 풀무學院 新築工事와 運動場 整地作業 時 出土되었다고 하나(사

\* 서울大 人文大 考古美術史學科 助教授.

\*\* 서울大 大學院 考古學 專攻.

1) 崔夢龍〈洪城郡 八卦里 磨製石器類〉《考古美術》90, 1968. pp.17-21.

2) 이 調査에는 筆者들을 비롯하여 林永珍·李熙濬·朴洋震·金庚澤 등이 參加하였고, 또한 資料를 提供해 주신 朱鑿魯 院長님과 洪淳明선생님 두 분의 호의에 감사드린다.



〈圖面 1〉 풀무골 주변의 地理的 環境

진 1.2), 어떠한 遺構 속에서 出土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 學院 院동네가 “괴인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野山과 金馬川을 끼고 있는 풀무골 주위환경이 先史人들의 生活立地條件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圖面 1〉 이 주변에 널려 있던 支石墓와 先史住居址에서 出土되었으리라 생각된다. 所藏되어 있는 磨製石器類는 石鏃의 경우 大部分 粘板岩製이고 나머지 石器類는 砂岩과 片岩製이다.

그 外 無文土器 長頸壺·百濟土器類·銅鏡 等の 遺物은 各各의 遺物이 어떤 遺構內에서 出土되었는지, 또한 그 精確한 出土地點 조차도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遺物들이 이 지역 鄉土文化를 保存하기 위해 隣近住民들에 의해 기증되어진 物件들이라고 하는 點으로 보아 주변에서 出土되었다고 짐작되거나 확실치는 않다.

# 1. 磨製石器類

## 1) 石斧

### a. 單刃扁平磨製石斧(圖面 2-㉓, 사진 4-左上)

母石을 조아서 일단 石斧의 形態로 整面한 다음 刃部만 매끈하게 갈았다. 刃部는 한 편에서만 磨研하여 날을 만든 單刃의 形態이다.

長 : 9.5cm 幅 : 5.5cm 두께 : 2cm

### b. 蛤刃扁平磨製石斧(圖面 2-㉔, 사진 3-左)

이 石斧는 全體面이 매우 精巧하게 磨研되었으며, 石斧의 幅과 두께의 比가 비슷하여 그 橫斷面이 거의 正사각형에 가깝다. 頭部의 한 쪽 모서리가 缺失되었으며, 刃部는 양쪽에서 磨研해 들어가 中間에서 合致된 蛤刃의 形態이다.

長 : 8.6cm 幅 : 6.5cm 두께 : 4.2cm

### c. 蛤刃扁平磨製石斧(圖面 2-㉕, 사진 3-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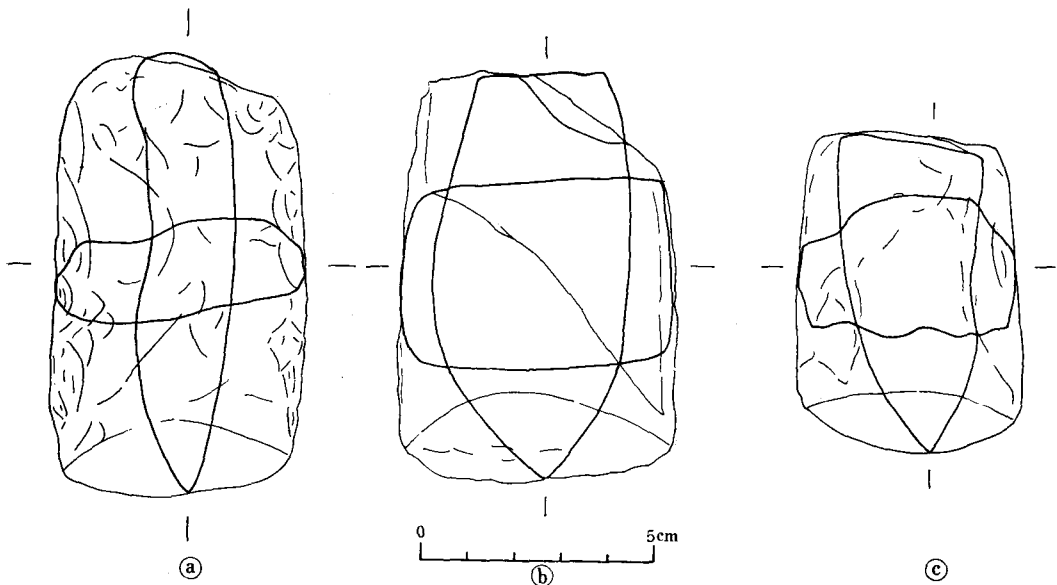
母石에서 剝片을 떼어내 成形한 다음 刃部를 제외한 全面을 조아서 整面하였다. 刃部는 蛤刃의 形態를 取하고 있으며, 매우 精巧하게 磨研되어 있다.

長 : 6.7cm 幅 : 4.6cm 두께 : 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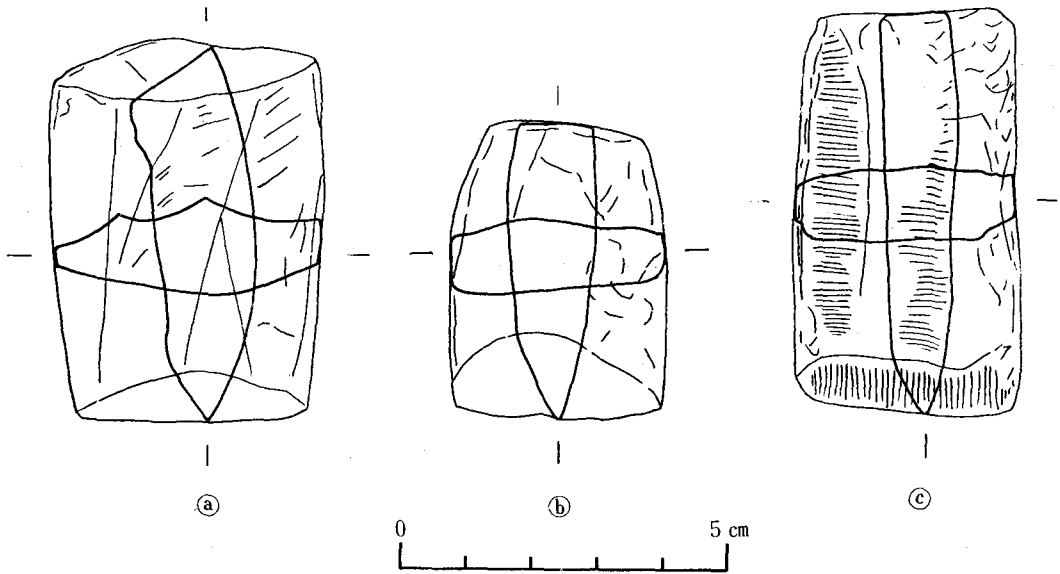
## 2) 대꺾날

### a. 單刃扁平대꺾날(圖面 3-㉓, 사진 4-右上)

母石에서 앞 部分을 길이로 세번 칼로 깎아낸 듯 剝片을 떼어내고 成形한 다음 조았으며, 뒷면과 刃部는 精巧하게 磨研되어 있다. 全體적으로 조금 휘어져 있으며, 刃部는 單刃이다.



〈圖面 2〉 石 斧



〈圖面 3〉 대 팻 날

長 : 5.8cm 幅 : 4.2cm 두께 : 1.5cm

b. 單刃扁平대팻날(圖面 3-⑥, 사진 4-左下)

小形으로서 母石을 敲打하여 形態를 만든 다음, 刃部만을 精巧하게 磨研하였다. 刃部는 單刃이다.

長 : 4.5cm 幅 : 3.2cm 두께 : 1.3cm

c. 單刃柱狀대팻날(圖面 3-⑦, 사진 4-右下)

이것 역시 母石을 敲打하여 柱狀의 形態로 만든 다음 全面을 磨研하였는데, 表面에 磨研된 흔적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즉 刃部는 縱으로 磨研되었고, 그 外 部分은 橫으로 磨研되었다.

長 : 6.2cm 幅 : 3.5cm 두께 : 1.1cm

### 3) 石劍

a. 一段柄式 磨製石劍(圖面 4-②, 사진 5-左)

完全한 形態로 남아 있는데, 劍身의 中央에 나 있는 등날이 칼끝에서 부터 柄部 上端까지 나 있다. 劍身의 斷面은 菱形과 볼록렌즈形의 中間形態이다. 柄部는 劍身이 없고 劍身에서 약간 縮約되어 連結되며, 앞뒷면이 평평한 斷面 長方形이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자루의 길이가 1.7cm 밖에 되지 않아 石槍으로 볼 수도 있겠으며, 또 近來에 들어와 南韓地方의 住居址와 墳墓遺跡에서 小形石劍이 종종 出土되는 點으로 보아 實用性이 없는 小形石劍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sup>3)</sup> 이와 거의 同一한 形式이 부근에 있는 扶餘 松菊里 50-1號 住居址에서 出土되었으며, 이와 類似한 小形石劍이 松菊里遺跡 다른 住居址에서도 많이 出土되었

3) 姜仁求外 《松菊里 I》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十一冊, 1979. p. 133.

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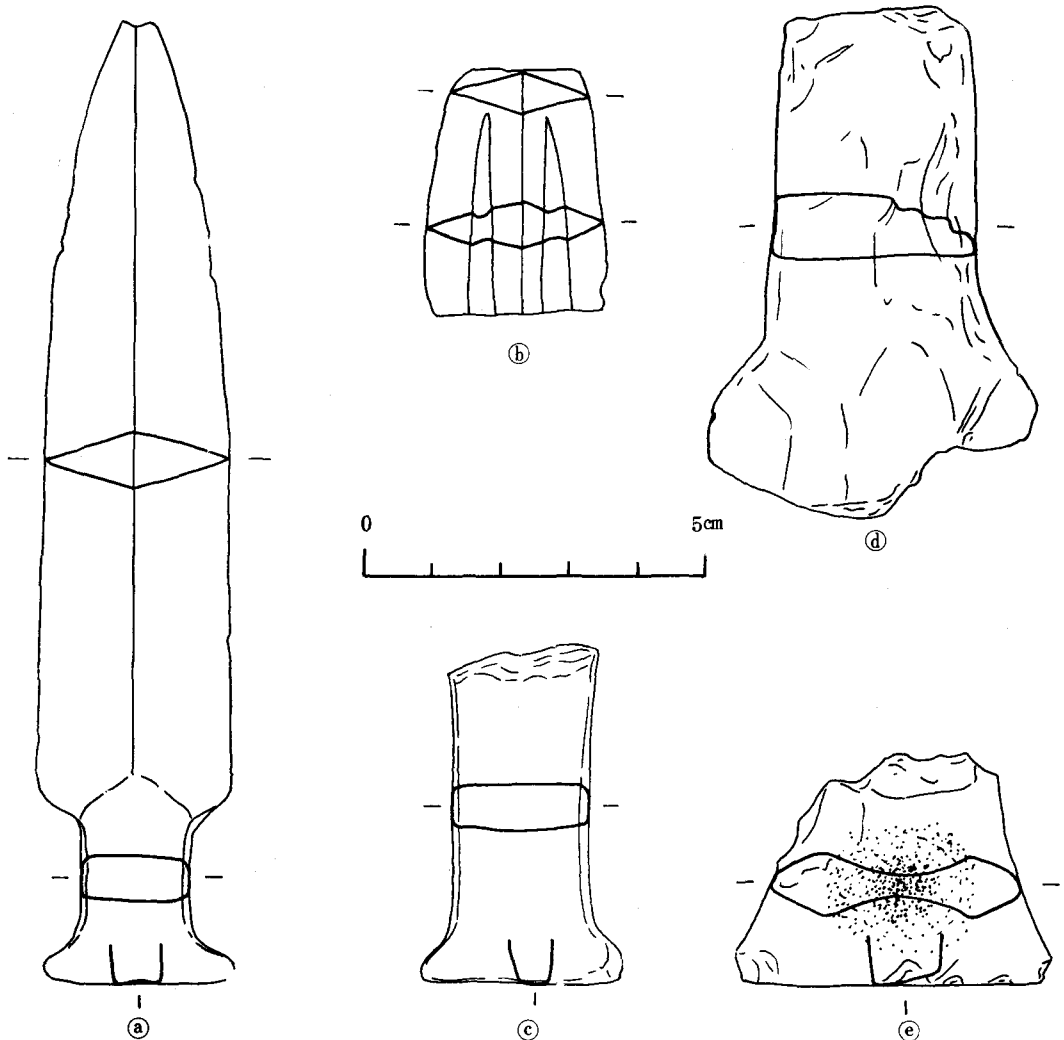
黃灰色頁岩製. 全長 : 14.2cm 身長 : 11.5cm 柄長 : 2.7cm

b. 有溝式 磨製石劍片(圖面 4-⑥, 사진 6-右上)

劍身部分만 片으로 남아 있어 全體的인 形態는 알 수 없다. 鋒部의 斷面은 菱形이며 劍身 中央에 등날이 서 있다. 鋒部 끝에서 約 3cm 정도 아래부터 등날을 中心으로 兩쪽에 溝가 파혀져서 現存 하는 길이까지 계속되고 있다.

黑青色粘板岩製. 現長 : 3.6cm

c. 磨製石劍 柄部片(圖面 4-③, 사진 5-右)



〈圖面 4〉 石 劍

4) 上揭書.

劍身은 없어지고 柄部만 남아 있다. 柄部의 形態는 앞뒷면이 평편하며, 斷面은 長方形이다.

黑青色 粘板岩製. 現長 : 5cm

d. 磨製石劍 柄部片(圖面 4-㉑, 사진 6-右下)

未完成인 柄部片이다. 앞뒷면에서는 磨研된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처음 다듬었을 때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다.

黑青色 粘板岩製. 現長 : 7.5cm

e. 磨製石劍 柄部片(圖面 4-㉒, 사진 6-左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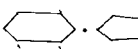

柄部 中 劍把部分만 남아 있다. 이 劍把部分에 앞뒷면 양쪽에서 쪼아서 구멍을 뚫으려고 한 것 같으며, 現在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구멍의 中央部分두께가 約 3mm 정도 된다. 이처럼 劍把部分에 鑽孔한 例는 稀貴한 것 같으며, 그 用途 역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黑青色 粘板岩製. 現長 : 3.5cm

4) 石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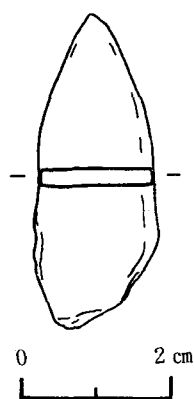
풀무學院 新築工事時 出土된 石鏃類는 無莖式片 1點, 中間式片 2點, 一段莖式 8點, 二段莖式 3點, 그리고 鏃身部片 5點 해서 都合 19點이다.

a. 無莖式片(圖面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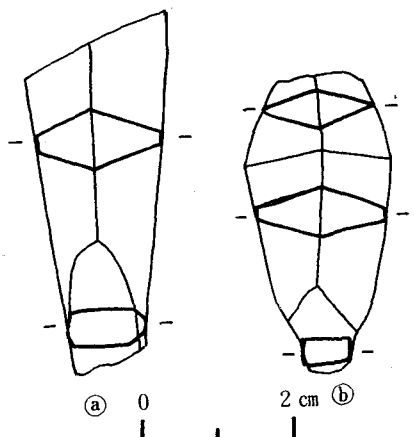
鏃身部만 남아 있어 底邊의 形態는 알 수 없다. 하지만 身部의 形態로 보아 莖이 없는 形式으로 보인다. 一般的인 경우 無莖式石鏃은 斷面이 扁平六角形(  )을 이루나,<sup>5)</sup> 이 石鏃 身部의 斷面은 直四角形(  )이다. 이와 같이 鏃身部의 양쪽 날부분이 ㄷ字로 磨研된 石鏃들이 이곳에서 나온 다른 形式에서도 보이고 있다. 現長 : 4.1cm

b. 中間式片(圖面 6)

모두 2點이 있는데, 鏃 鋒部가 떨어져 나갔으나 대체적로 崔盛洛의 分類으로 B II式<sup>6)</sup>에 해당된



〈圖面 5〉 無莖式 石鏃



〈圖面 6〉 中間式 石鏃

5) 崔盛洛 <韓國磨製石鏃의 考察> 《韓國考古學報》 12, 1982. p. 269.  
6) 崔盛洛에 의하면, 그는 B II代(中間式 菱形)을 斷面이 菱形이고 鏃身部와 莖部 사이에 뚜렷한 區分이 없고, 全體의인 形態가 마름모형을 이루는 形式이라 하였다. 上揭文, pp. 269-270.

다. 하지만 이 중 한 점(圖面 6-㉔)은 身部 斷面에서 다른 점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身部の 斷面은 날 부분이 ㄷ자로 磨研되어 六角形으로 되어 있고, 莖部の 斷面은 거의 八角形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한 점(圖面 6-㉕)은 鍔 身部 中央을 경계로 上·下로 경사지게 磨研되어 있는데, 上部는 그 斷面이 菱形, 下部는 날 부분이 ㄷ자로 磨研되어져 六角形의 斷面을 가지고 있는 特異한 形態이다.

c. 一段莖式

대체적으로 모두 鍔 身部和 莖部가 區分되고 있는 一段莖式이지만, 鍔 中央에 나있는 鎬線의 길이에 따라 두 部類로 나누어진다.

(1) ㄱ類(圖面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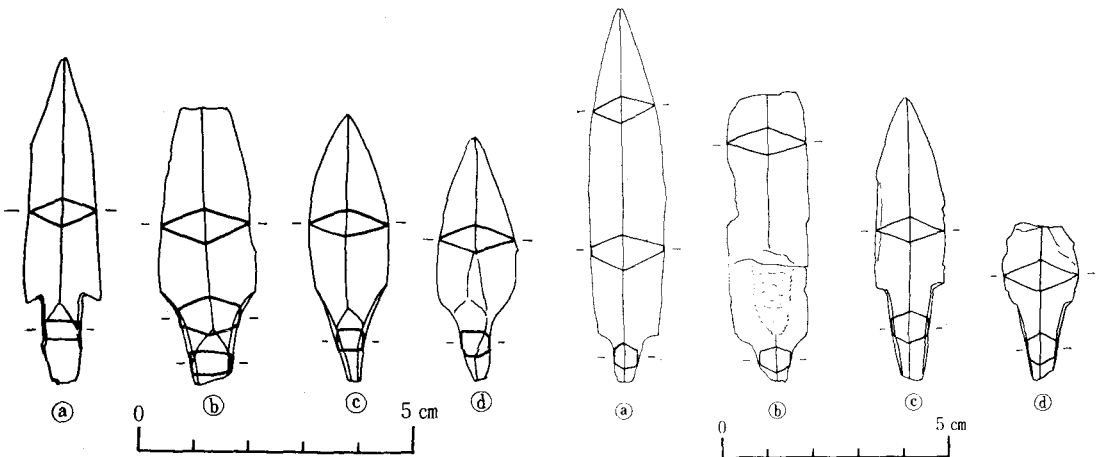
모두 4점이 있는데 鎬線(등날)이 莖部 上端에서 끝나는 관계로 身部 斷面은 菱形, 莖部 斷面은 四角形을 이루고 있다. 이 中 한 점은 미늘(逆刺)이 發達하여 兩翼形을 이루고 있으며, 鍔의 鋒部에서 경사를 죽여 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圖面 7-㉔, 사진 7-⑦), 이러한 形態는 압록강流域을 中心으로 하는 平安北道의 地方的 特色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나머지 3점(圖面 7-㉕㉖㉗ 사진 7-①②)의 形式은 부근에 있는 扶餘 松菊里住居址遺蹟에서 多量 出土된 松菊里의 典型的 形式에 속한다.<sup>8)</sup>

(2) ㄴ類(圖面 8, 사진 7-⑥)

모두 4점으로써 鎬線이 莖部 下端까지 계속되는 關係로 身部 斷面은 菱形, 莖部 斷面은 六角形을 이루고 있으며, 미늘이 조금 發達되어 있다. 이 中 한 점(圖面 8-㉔, 사진 7-④)은 鍔 鋒部下 3cm 되는 점에서부터 양날이 ㄷ자로 磨研되어져 鍔身 上部斷面은 菱形, 下部斷面은 六角形으로 되어 있다.

d. 二段莖式(圖面 9, 사진 7-⑤⑧③)

모두 3점이 있는데 鎬線은 莖上段까지 내려오면서 점차 사라지며, 이 중 한 점(圖面 9-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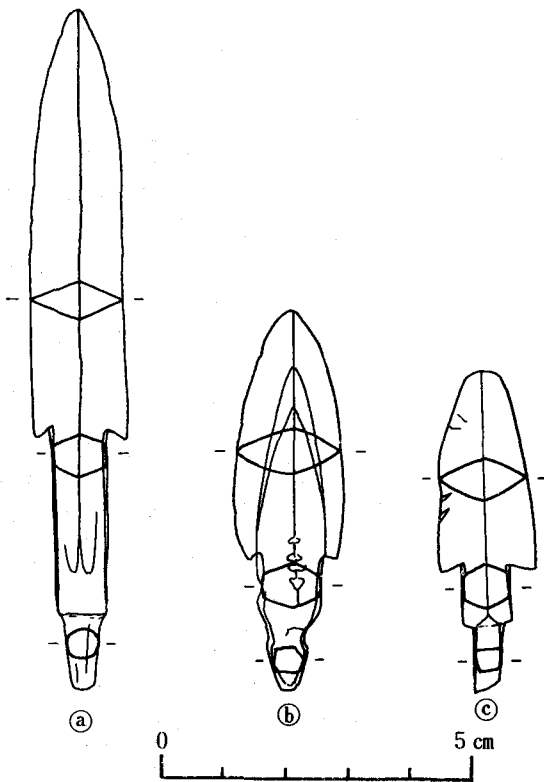


〈圖面 7〉 一段莖式 ㄱ類 石鏃

〈圖面 8〉 一段莖式 ㄴ類 石鏃

7) 上掲文, p.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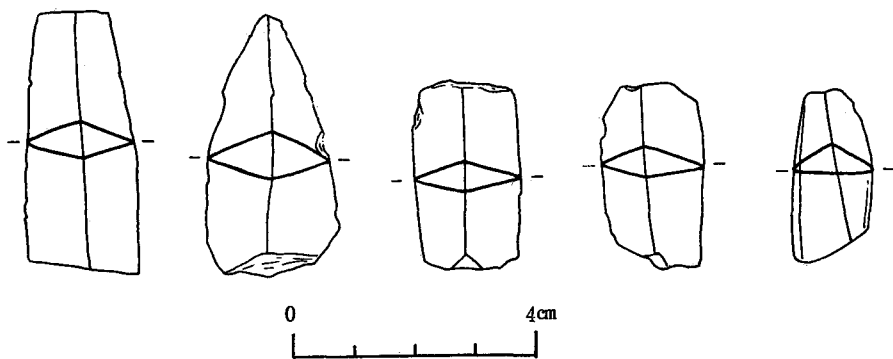
8) 姜仁求外, 前掲書, p. 43.



〈圖面 9〉二段莖式石鏃

彎刃의 魚形石刀가 長舟形으로 變化되면서 그 불안한 形態를 矯正하기 위해 背가 가볍게 外彎되었다고 보고 있다.<sup>11)</sup> 石刀의 表面이 떨어져 나가 鑽孔手法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刃은 單刃이다.

現長：7.5cm 幅：4.5cm 殘存두께：0.7cm



〈圖面 10〉其他石鏃片

7-⑧)은 莖部上段(윗꼬다리 부분)에 나 있는 鑄線을 칼로 빚은듯이 하여 여러 개의 홈을 만들었다. 鏃身部の 斷面은 모두 菱形이며, 미늘이 잘 發達하여 兩翼形을 이루고 있다. 莖部上段(윗꼬다리 부분)의 斷面은 모두 六角形을 이루고 있으며, 莖部 下段(아래꼬다리 부분)은 圓形四角形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形式은 韓半島內에서 角形土器遺蹟·中部地方·忠淸地方에 密集되어 分布하고 있다.<sup>9)</sup>

e. 其他(圖面 10)

鏃身片들로서 모두 5點이 있는데, 斷面은 모두 菱形이다. 이 중 斷面이 三角形으로 보이는 것은 원래 菱形이었으나 뒷 면이 파손되어 三角形으로 보이고 있을 뿐이다.

5) 石刀

a. 半月形石刀片(圖面 11-②, 사진 6-左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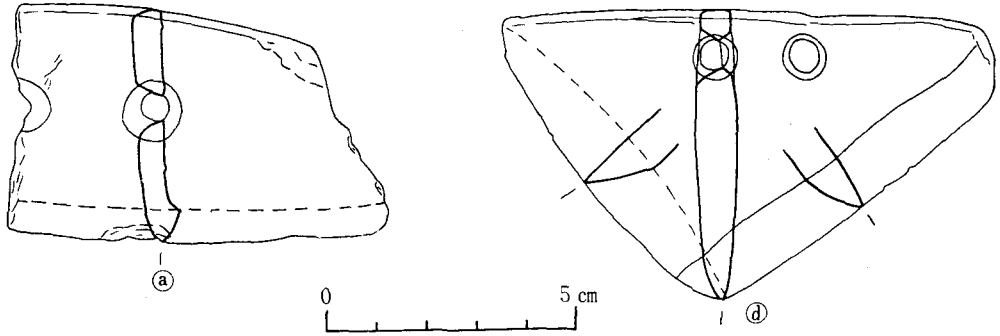
金元龍의 分類에 따르면 長舟形에 屬하는 것으로,<sup>10)</sup> 石刀의 脛손이 꽤 심하다. 石刀의 背가 약간 外彎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外彎背外

9) 崔盛洛, 前揭文, p. 289.

10) 金元龍 〈韓國 半月形石刀의 發生과 展開〉《史學志》6輯, 1972, p. 4.

11) 上揭文.





〈圖面 11〉 石 刀

b. 三角形石刀(圖面 11-②, 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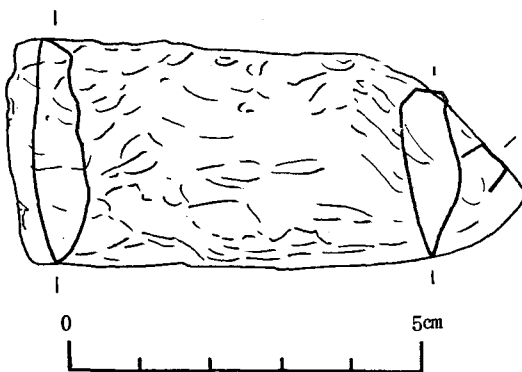
直背 雙邊刃으로 短舟形石刀의 外彎刃을 두개의 直線으로 斜邊化시킨 것이며, 그 形態는 大體로 二等邊三角形의 모습이다. 鑽孔手法을 보면 구멍을 한쪽에서 거의 2/3정도 뚫고 반대편에서 1/3정도 뚫어서 만나게 하였으며,刃은 서로 反對가 되는 交叉刃인데 모두 單刃이다. 現在까지 이러한 形式의 例는 忠南 以南의 地域에서만 보이고 있으며, 特히 西南海岸地帶에서 集中的으로 發見되는 湖南地方의 特殊形式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閃綠岩製. 長: 10cm 幅: 5.8cm 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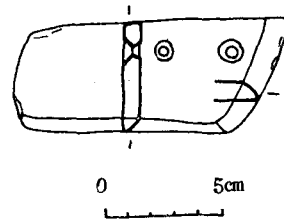
c. 未完成石刀片(圖面 12)

石器의 大部分의 面을 敲打하여 成形한 後에 뒷면에서 날카롭게 磨研하여 刃을 만들었다. 片으로 남아 있으나 外彎背直刃의 形態를 取하고 있으며, 背와 刃이 만나는 部分은 날카롭게 갈아져 鋒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원래 石刀로서 제작하다가 도중에 한쪽 面이 부러진 관계로 鋒刃을 만들어 收穫具 以外의 目的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와 같이 石刀가 훼손된 以後 그 機能을 補強 내지는 확대시킨 形式의 資料가 이웃 天安 斗井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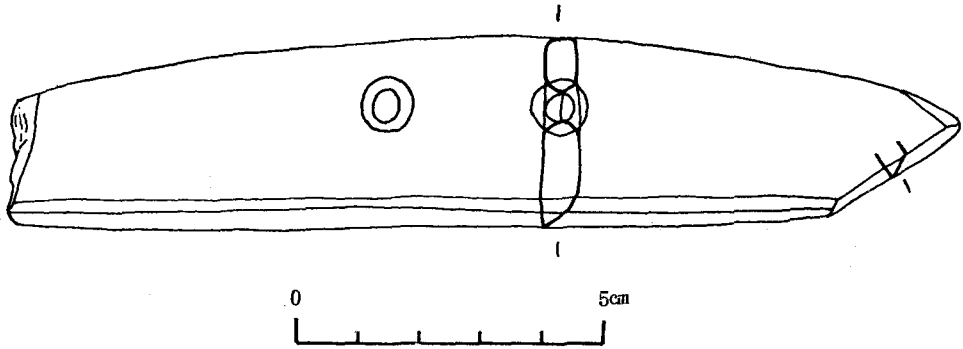


〈圖面 12〉 未完成 石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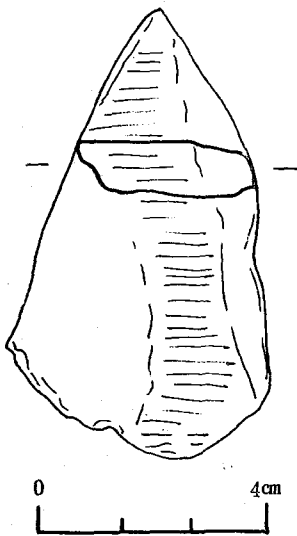


〈圖面 13〉 天安 斗井里 出土 石刀

12) 上掲文, p.14.



〈圖面 14〉 春川 新梅里 1號 住居址 出土 石刀



〈圖面 15〉 石器片

에서 보이고 있으며<sup>13)</sup>(圖面 13), 특히 최근 春川 新梅里 1號住居址內에서 出土된 것으로 한 側面에 창끝처럼 뾰족한 鋒刃을 참가시킨 外彎背直刃의 半月形石刀<sup>14)</sup>(圖面 14)는 形態的인 側面에서 이것과 類似한 點이 많다. 現長 : 7.2cm 幅 : 3.2cm 두께 : 0.8cm

6) 其他(圖面 15)

片인데, 그 形態는 石劍의 鋒部와 같이 보이나 확실치는 않다. 中間部分에 橫으로 거칠게 마연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現長 : 6.0cm 두께 : 0.7cm

## 2. 無文土器 長頸壺(圖面 16, 사진 9)

굵은 石粒이 많이 섞인 粘土質의 胎土를 지니고 있다.

색깔은 대체적으로 褐色을 띄고 있으나, 土器 燒成時 불받음이 良好하지 못해 나타난 黑斑이 여러 곳에서 보이며, 어떤 쪽에서 土器를 관찰하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뒤덮힌 부분도 있다. 이렇게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이는 部分은 器壁속까지 黑色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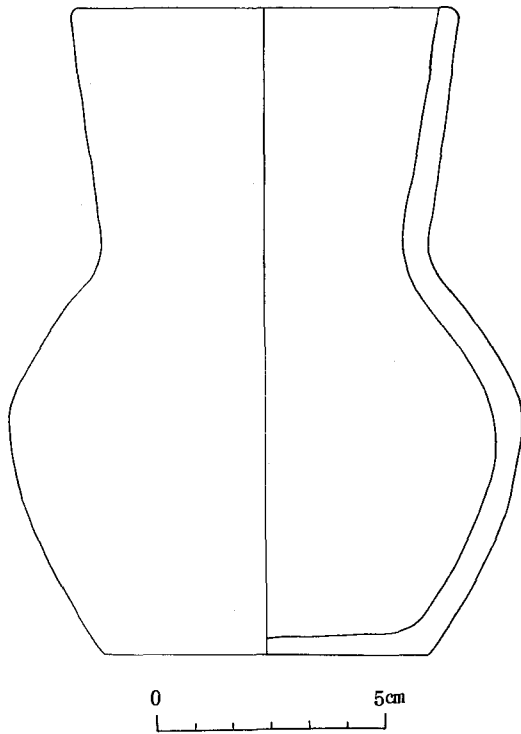
口緣部는 直立하고 있으며, 圓筒의 약간 밖으로 헤벌어진 頸, 불룩하게 曲面을 이룬 胴體, 그리고 굽이 없는 平底를 가진 長頸壺의 形態를 取하고 있다. 器壁의 두께는 대체로 0.8cm 정도인데, 器底의 두께는 얇아져서 0.5cm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胴體部가 많이 뒤튼어진 形狀으로 보아 물레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先史時代土器 製作方法인 卷上法과 輪積法에 의한 製作으로 보인다.

이 長頸壺는 中國 沈陽 鄭家洼子 6512號墓에서 出土된 黑陶<sup>15)</sup>나 부근 忠南 牙山郡 鹽峙面 白岩里

13) 尹武炳 <天安 斗井里의 竪穴住居址> 《美術資料》 8號, 1963. pp.20-21.

14) 李健茂外 <中島 II>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十三册, 1981. p.19.

15) 沈陽故宮博物館, <沈陽鄭家洼子的 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75-1, 1975. p.151.



〈圖面 16〉 無文土器 長頸壺

(圖面 17-⑥, 사진 10-右)의 蓋는 굵은 石粒이 間間이 섞인 粘土質의 胎土이며, 이 역시 灰青色을 띄고 있다. 蓋身은 많이 外彎하였으며, 턱部分이 잘록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튀어 나왔다. 口緣은 2段으로 내려가 口緣段이 뭉뚝하게 끝난다. 이것 역시 蓋 內外면에 물레回轉자국이 많이 나 있다.

이와같은 種類의 蓋는 潭陽 齊月里<sup>17)</sup>에서도 나오고 있으나, 口緣의 形態에 있어 그것과는 差異點이 있다.

蓋高 : 2.4cm 턱徑 : 10.8cm 口徑 : 10.2cm

#### 4. 黃褐色 軟質土器 盥(圖面 18, 사진 11)

매우 精選된 粘土質의 胎土를 지니고 있으며, 燒成이 매우 양호하여 全體的으로 黃褐色을 띄고 있다. 器形은 平底에 胴部가 上方으로 가면서 內傾하여 잘록해 진 듯 하다가, 口緣部가 약간 外反

에서 發見된 長頸壺<sup>16)</sup>와 形態上으로는 매우 類似하나 色調나 胎土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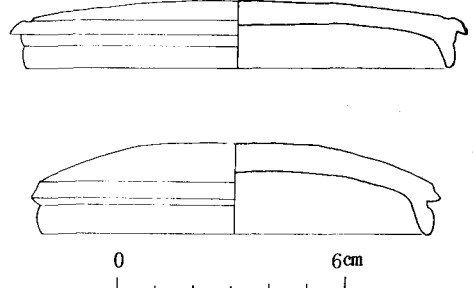
高 : 17cm 口徑 : 10cm 胴最大徑 : 13.4cm 底徑 : 8.8cm

#### 3. 灰青色 軟質土器蓋(圖面 17, 사진 10)

여기 풀무學院에 所藏되어 있는 軟質蓋는 2點이 있는데, 모두 盒의 뚜껑(蓋)으로 보인다.

(圖面 17-① 사진 10-左)의 蓋는 石粒이 아주 조금 섞인 精選된 粘土質의 胎土를 지니고 있으며, 灰青色을 띄고 있다. 蓋身은 조금 外彎하였으며 그 턱은 매부리모양으로 안으로 들어가 꺾였고, 口緣은 2段으로 내려가 口緣端이 뭉뚝하게 끝난다. 蓋 頭部에는 한 줄의 동심원이 파여져 있으며, 面을 고르기 위하여 두터운 部分을 깎아낸 흔적이 있다. 蓋 內部에는 손 끝에 눌린 물레 回轉자국이 나 있으며, 역시 器壁을 고르기 위해 깎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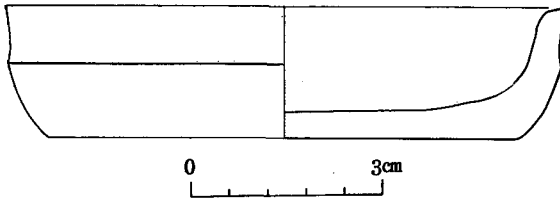
蓋高 : 1.7cm 턱徑 : 12cm 口徑 : 11.2cm



〈圖面 17〉 灰青色 軟質土器 蓋

16) 〈牙山 白岩里 出土 一括遺物〉《考古學》3輯, 1974, p. 149.

17) 崔夢龍 〈潭陽齊月里 百濟古墳과 그 出土遺物〉《文化財》10號, 1976, pp. 132-133.



〈圖面 19〉 赤色 軟質土器 盤

한鉢形이다.

서울 九宜洞 古墳出土의 서기전 6세기경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鉢이나 盤과 같은 色調 및 胎土를 지니고 있으나,<sup>18)</sup> 形態上으로는 약간 差異가 있다.

高: 3.5cm 口徑: 14.4cm

### 5. 銅鏡(圖面 19·20, 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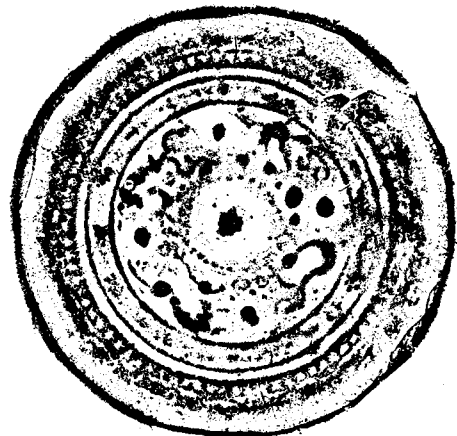
이 銅鏡의 銅面은 鏡緣에서 약간 外反되어 있고, 鏡緣의 斷面은 三角形이다. 鏡背에는 中央의 圓鈕를 中心으로 三重의 文樣帶가 돌고 있다. 文樣帶의 第1內區는 圓鈕 밖으로 여러 個의 小乳가 配置되어 있으며, 그 밖으로 正四角形의 各 모서리에 4個의 大乳가 있고, 그 사이 사이에 形態를 알 수 없는 짐승이 4마리가 둘러져 있다. 한 줄의 동심원 밖에 第2內區의 文樣帶가 있는데, 훼손이 심하여 어떤 文樣이 둘러져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 밖으로 다시 두 줄의 동심원이 그어져 있고 第3內區의 文樣帶가 있는데, 凸文으로 된 鋸齒文이 둘러져 있다.

이 銅鏡은 白銅質인데, 現在 鏡背의 가장자리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銅面은 磨研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나머지는 훼손되어 있다.

이 것과 거의 同一한 形態의 尙方禽獸鏡이 國立博物館 所藏品 中에 2個가 있는데, 모두 高麗時代 古墳에서 出土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9)</sup> 直徑: 12cm 厚度: 0.2cm



〈圖面 19〉 銅 鏡



〈圖面 20〉 銅 鏡

18) 華陽地區遺蹟發掘調查團 《華陽地區遺蹟發掘報告》, 1977. p. 16.

19) 李蘭暎 《韓國의 銅鏡》(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 41.

### Ⅲ. 後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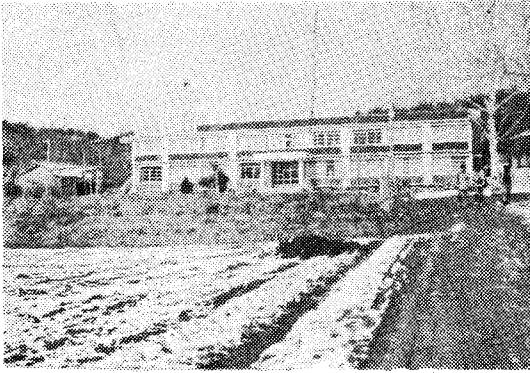
이곳 풀무學院 所藏遺物 가운데에서 몇가지 磨製石器類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特異한 形態를 보인다. 完全한 形態로 남아 있는 小形一段柄式 磨製石劍은 부근 扶餘 松菊里住居址出土 石劍과 거의 同一하여, 石劍의 樣相에 따른 두 地域 間的 聯關性을 생각하게 해 준다. 그리고 비록 未完成 石刀이기는 하나 훼손된 石刀를 다른 用途로 使用하기 위해 機能을 補強한 것이 보이는데, 이는 天安 斗井里, 春川 新梅里의 例와 더불어 石刀의 機能的 變化가 자주 있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石鏃의 경우 매우 多樣한 面을 發見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圖面 5, 6, 8-②)의 경우와 같이 鏃의 양쪽 날部分이 ㄷ字로 磨研되어 같은 身部에서도 斷面이 菱形과 六角形으로 區分되어 있는 點은 特異하다. 지금까지 石鏃에 대한 形式分類를 시도한 作業이 많이 나왔으나,<sup>20)</sup> 어떤 누구도 鏃 身部에 있는 이러한 形態의 屬性(Form attribute)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屬性이 石鏃研究에 중요한 역할을 占한다고 단정짓기는 힘드나, 이와같은 例가 부근 安眠島 樓洞里出土 石鏃에서도 보이고 있는 點<sup>21)</sup>으로 보아 계속적인 資料축적이 이루어지면 石鏃 形式分類에 있어 중요한 變數로 등장할 可能性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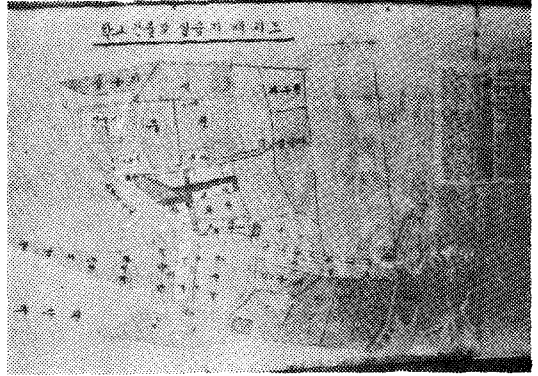
그 外 無文土器 長頸壺와 蓋·皿 등의 百濟土器類, 銅鏡 등은 비록 精確한 出土地點을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資料的인 面에서 價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이 곳 풀무學院에 所藏되어 있는 各種 遺物들은 이 地方의 계속적인 調查가 이루어지면 考古學的인 研究를 함에 있어 중요한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믿는다. (1984. 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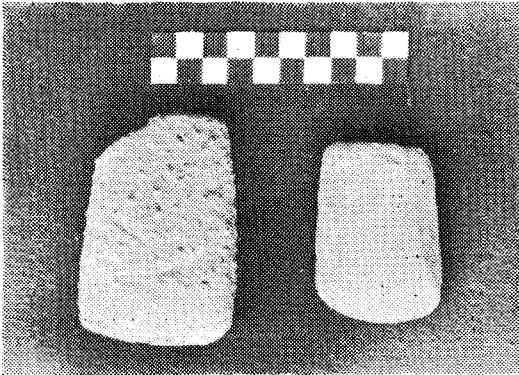
- 
- 20)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京都:高桐書院, 1948) pp. 124-130.  
황기덕 <조선에 나타난 활족의 기본형태와 그 분포>《문화유산》 58-6, 1958. pp. 22-27.  
三上次男 《滿鮮原始墳墓の研究》(東京:吉川弘文館, 1961) pp. 437-439.  
박진욱 <우리나라 활족의 형태와 그 변천>《고고민속》 67-1, 1967. pp. 29-32.  
崔夢龍 <潭陽 齊月里의 石器文化>《湖南文化研究》 5, 1973. pp. 1-23.  
李白圭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鏃>《考古學》 3, 1974. pp. 55-111.  
임세권 <우리나라 마제석족의 연구>《韓國史研究》 17, 1977. pp. 3-34.  
崔盛洛, 前揭文.  
全築來 <韓國 磨製石劍·石鏃 編년에 關한 研究>《馬韓·百濟文化》 4·5合輯, 1982. pp. 39-116.
- 21) 金秉模 <西海岸地方의 先史文化調查>《韓國考古學報》 14·15合輯, 1983.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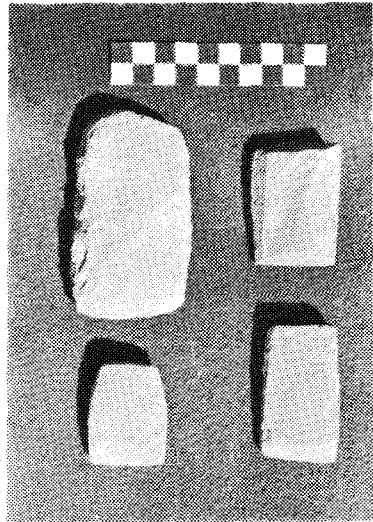
〈사진 1〉 풀무원 敎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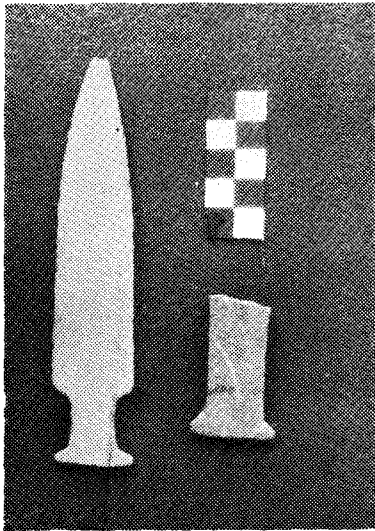
〈사진 2〉 풀무원 敎舍 及 寢室지 배치도



〈사진 3〉 石 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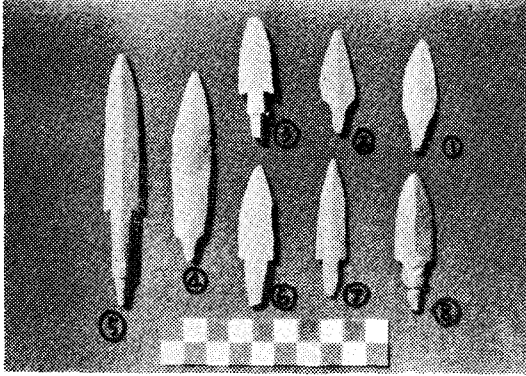
〈사진 4〉 石斧 및 대꺾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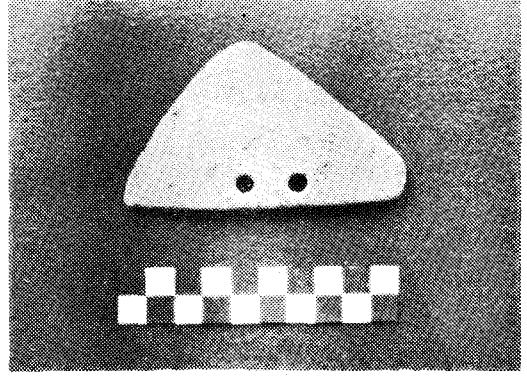
〈사진 5〉 石 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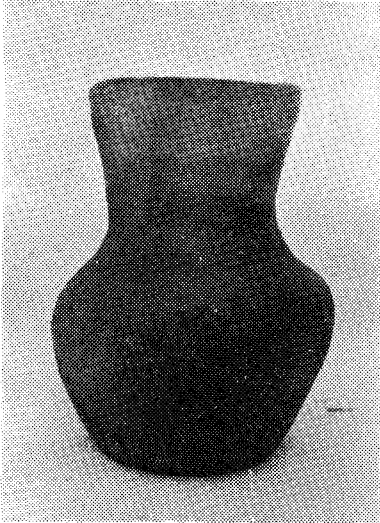
〈사진 6〉 石劍 및 石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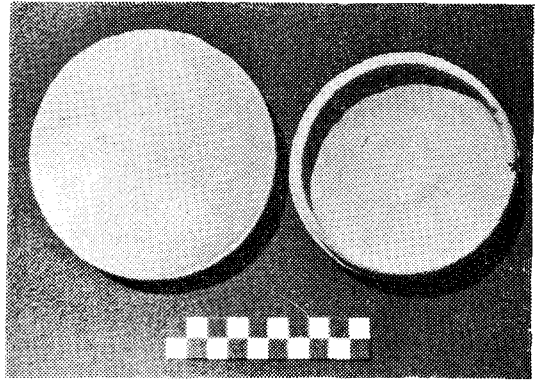
〈사진 7〉 石 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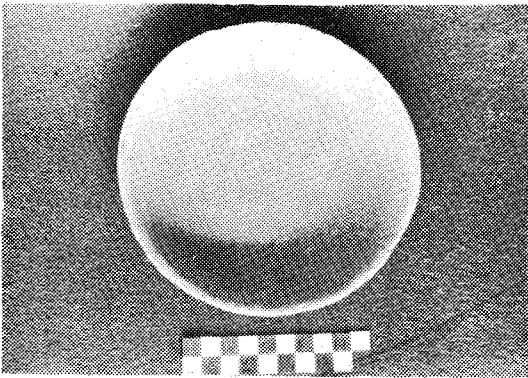
〈사진 8〉 石 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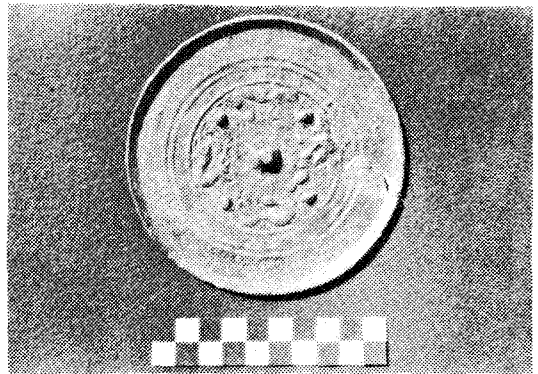
〈사진 9〉 無文土器 長頸壺



〈사진 10〉 灰青色 軟質土器 蓋



〈사진 11〉 黃褐色 軟質土器 盥



〈사진 12〉 銅 鏡